

# 전남 '농가자산 꿀찌' 오명 17년만에 벗었다

### 지난해 3억6928만원 전년비 2488만원 ↑ 전국 5억6562만원 소득은 두자릿수 오르며 4000만원 첫 돌파...부채는 2531만원

전남이 17년 동안 이어왔던 농가자산 '꿀찌'의 오명을 벗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겼다.

27일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평균 농가자산은 3억6928만원으로, 전년(3억4440만원)보다 2488만원(7.2%)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 농가자산은 5억6562만원으로, 전남은 이에 비해 1억9635만원 적다.

농가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9억4802만원)였고, 경기(9억1137만원), 충남(4억2780만원), 강원(5억854만원), 경남(4억9632만원), 충북(4억9291만원), 경북(4억38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농가자산 최저를 기록한 지역은 전북으로 전년보다 3.9%(-1467만원) 감소한 3억6470만원을 기록했다.

전남은 관련 통계를 낸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7년 연속 9개 도(道) 가운데 농가자산 꿀찌를 이어왔다.

지난 2003년 1억5704만원이었던 전남 농가소득은 2008년(2억546만원)과 2013년(2억4238만원) 전년보다 1500만원 넘게 꺾였지만 지난 2014년(2억5569만원) 이후 2015년 2억6941만원→2016년 2억8053만원→2017년 3억482만원→2018년 3억2652만원→2019년 3억4440만원→지난해 3억6928만원 등으로 7년 연속 증가해왔다.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한 농가소득은 지난해 처음 4000만원을 넘겼다.

전남 농가소득은 4368만원으로, 전년(3932만원)에 비해 11.1%(436만원) 증가했다. 전국 평균은 9.3%(385만원) 증가한 450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남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가 6.7%(146만원) 늘었으나 농업총수입이 9.0%(277만원) 증가하며, 전년보다 14.8%(131만원) 증가한 1014만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1182만원)보다는 168만원 가량 모자라다. 9개 도지역 가운데 경북이 1658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은 경남(938만원)에 이



어서 두 번째로 낮다.

지난해 전남 농가순소득은 2539만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고, 농가부채는 5.6% 감소한 2531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부채는 2196만원으로, 전년보다 9.0% 줄었다.

전남 농가의 사업외소득은 전년보다 7.4% 증가한 963만원을 기록했지만, 농업외소득과 농지임대료는 각각 45.5%, 15.0% 감소했다.

전남 농업외소득은 연 평균 27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 줄었고, 농지임대료는 24만원에서 20만 4000원으로 감소했다. 전남 농지임대료는 평균(29만6000원)보다 9만2000원 가량 적고, 충북(16만2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전남 농가당 농업상시종사자는 2017년(1.90명) 이후 2018년(1.79명), 2019년(1.76명) 등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다 지난해 1.81명으로 반등했다. 전국 평균 상시종사자 1.79명 보다는 소폭 많았다. 지역농업노동시간은 연 985.9시간에 939.3시간으로 47시간 가량 짧아졌다.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은 1만5907㎡(4812평)으로 전년(1만4928㎡)보다 6.6%(979㎡) 증가했다. 5년 전인 2015년(1만7445㎡)에 비해서는 8.8%(-1538㎡) 작아진 규모다.

농업소득을 가계지출로 나뉜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률을 산출해보니 지난 2019년 26.86%에서 지난해 30.99%로 올랐지만, 이는 전국 평균(34.27%)을 밑돌았다. 농업소득률(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은 30.3%로, 평균(38.3%)을 넘지 못했고 제주(22.8%), 경남(26.3%)에 이어 9개 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다.

↓ 코스피	3165.51 (-2.92)
↑ 코스닥	974.08 (+8.02)
↓ 금리(국고채 3년)	1.124 (-0.037)
↑ 환율(USD)	1118.10 (+1.20)

기준금리 동결 **0.5%**  
경제전망 상향 **4.0%**

한은 "수출 호조 등 회복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로 유지하고 올해 '4%대 경제성장'을 내다봤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지난해 7월, 8월, 10월, 11월과 올해 1월, 2월, 4월에 이어 여덟 번째 '동결'이다.

한은은 이날 금융위 회의 직후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실질GDP)은 4.0%로 전망했다. 지난 2월 25일 전망치(3.0%)보다 1%포인트나 높여 잡았다. 내년 성장률도 2.5%에서 3.0%로 0.5%포인트 올려 잡았다.

한은 측은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지속, 백신 접종 확대 및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국내경제도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민간소비도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3%에서 1.8%로 상향조정했다. 내년 상승률은 1.4%로 유지했다.

## 광주·전남 제조업계 경영애로사항은?

### '원자재값 상승' 1위... '불확실한 경제상황' 뒤이어

광주·전남 제조업계가 경영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7일 발표한 '2021년 5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 23.5%는 '원자재 가격상승'을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 수치는 전년(20.2%)보다 3.3%포인트 높다.

이외 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21.3%), 내수부진(12.4%),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7.7%), 수출부진(5.4%), 경쟁심화(2.9%), 환율·정부규제·계절적 요인 등 기타(26.8%) 등이 있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0월부터 21일까지 제조업 194개·비제조업 214개 등 4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달 광주·전남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 '제조업 업황BSI'는 87로,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6월 업황전망BSI도 88로 지난해 전월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 체감경기 지표는 전월보다 떨어졌지만, 신규수주BSI는 97로 전월대비 3포인트 올랐고, 6월 신규수주전망BSI는 지난해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한 98을 나타냈다.

반면 비제조업 업황BSI는 70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상승했으며, 6월 업황전망BSI는 72로 전월과 같았다.

비제조업 자금사정B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오른 76을 나타냈다. 6월 자금사정전망BSI도 78로 지난해 전월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 해양에너지, 가스 원격검침 기술 개발 협업

### SKT·그린이엔에스 등과 양해각서 체결

광주·전남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가 가스 원격검침 기술 개발을 위한 협업을 벌인다.

해양에너지는 지난 26일 광주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SK텔레콤, 광주 벤처기업(주)그린이엔에스, 한국전력 1호 나주 연구소 기업(주)구루와 '가스 원격검침 시스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오른쪽 두번째)와 SK텔레콤, 지역기업(주)그린이엔에스, (주)구루가 '가스 원격검침 시스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해양에너지 제공)

협약식에는 해양에너지 김형순 대표와 SK텔레콤 신용식Co.장, 그린이엔에스 이숙희 대표, 구루 김동섭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 AMI 시스템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검침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가스 계량기'를 말한다.

해양에너지는 가스미터 기술 솔루션 제공과 개발 모델 설치 및 실증, SK텔레콤은 무선통신 인프라 제공, 그린이엔에스는 원격검침 무선모뎀 개발과 제작, 구루는 보안솔루션과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역할 분담을 한다.

이들 협약기관은 연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순 사장은 "글로벌 기업 및 우수한 기술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들과 국내 가스미터 보안 기술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게 됐다"며 "보안기술과 원격검침 인프라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국적으로 보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전KDN, 광주·전남 5곳 우수협력사 선정

한전KDN이 광주·전남 5개사를 포함한 12개사를 '2021년도 우수협력사'로 선정했다.

한전KDN은 지난 25일 나주 본사에서 12개 중소기업에 우수협력사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우수협력사는 지난해보다 1개사 더 늘었고, 광주·전남에서는 (주)그리드텍, (주)네오드림스, (주)아이티엔, (주)오픈노트, (주)니티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은 내부 추천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이들 기업은 1년 동안 한전KDN으로부터 '동반성장 프로그램 우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계약보증수수료 지원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가점 부여 ▲우수협력사 직원 휴가비 지원 등이 있다.

올해는 인지세 전액지원과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지원 등 혜택을 확대했다. 앞으로 한전KDN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협력사 홍보도 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